

## 왜 아직도 지식인인가?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사회학)

오늘날 우리가 추상적으로 설정된 역사의 방향과 그에 대한 책임성을 전제로 둔 채, 사람들에게 지적인 엄격함과 정직성, 강인함을 강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역사의 짐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시대의 과제 앞에 자신을 내던지던 선구적 지식인의 모습은 '박물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어색한 것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의 가치를 앞세우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지식인의 모습이 점차 드물어진 것은 지식인들 스스로가 현실에 쉽게 굴복하거나 아예 사상 전향을 감행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투쟁과 갈등의 중심이 국가의 활동 영역에서 자본의 영역으로 이동한 현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날 만물이 상품화된 시대에 들어서서 자본의 지배는 지배/피지배의 현실을 비가시화(非可視化)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하여 무관심을 조장하거나 상품의 공급으로 즐거움을 제공해 줌으로써, 걸림과 소외의 영역을 주변화시켜내고, 구조적 상황을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조건으로 치환한다. 그리하여 상품이 신(神)의 지위에 올라서면서 신은 인간을 일대일의 관계로 호명하고, 사람들 간의 연대의 기반은 허물어진다. 료타르(Lyotard)가 말한 지식인의 종언이라는 것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벨(Daniel Bell)은 지식인은 '국가'적 목적을 분명한 말로 규명해 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지식인 보편가치를 내세우면서 투쟁의 한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국가를 누가 장악할 것이며, 국가의 이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의제가 던져지는 상황에서이다. 지난날 지식인이 혁명가가 될 것은 바로, 기존의 국가 건설의 주체를 지식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스스로가 국가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려는 시도였다. 그것은 적과 나의 이분법의 구분 속에서 치러지는 일종의 전쟁이었다. 국가권력을 향한 투쟁은 바로 '악의 무리'를 물리치고 '선'의 무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러한 성스러움의 명분 하에서 생활 대중들이 '보편'의 특질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동원되는 오류도 저질러졌다. 한국전쟁 시의 좌우세력이 각각 민간인에게 저지른 살육, 풀 포트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대량 학살은 '지식'이 종교의 성격을 지닐 때 어떠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지식인이 혁명에 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는 해방될 수 있다. "지식계급은 특권계급의 주구가 되며 또 수족이 되며 노예가 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지식인은 끊임없이 동요하며,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한다"라는 모든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절별하면서 이제 역사 앞에 몇몇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인의 자기해방이 반드시 민중의 해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식이 종교가 되고, 지식이 유토피아가 되는 과정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지식인의 '상황 돌파'의 행동은 민중의 삶의 현실을 자기의 방식대로 '공동체'의 관념으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인이 구축한 '공동체'는 불의와 부정한 질서에 대항하여 엄청난 파괴력을 지닐 것이기는 하나, 역으로 불에 내린 눈처럼 하루아침에 녹아내릴 수 있는 취약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지식인의 관념성에 기인하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서 나쁜 것만도 좋은 것만도 아니다.

국가의 영역에서 자본의 영역으로 지배가 전이하였다는 것은 곧 지식인이 견지하는 '관념'의 공동체를 해체하는 작업의 다름 아니다. 포스트 모던의 사상이란 바로 국가를 넘어선다는 명분 하에 자본 시대의 도래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르타르(Lyotard)는 지식인이란 인간, 인류, 국가, 국민, 프롤레타리아트, 창조자 혹은 이런 종류의 실재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주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지식인은 이러한 위치에서 상황과 조건을 분석하고 기술하며, 이러한 주체가 실현되거나 점진적으로 실현되도록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규정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보편적 이념의 쇠퇴는 보편적 주체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식인의 설자리를 없앴으며 가능한 최상의 수행성, 즉 최상의 투입/산출(지출과 수입)이라는 기술적 기준에 의해 움직이는 오늘날의 정밀과학, 첨단기술, 인문과학 분야에서 교육받은 자들, 즉 신기술, 민간, 경제, 사회, 군사, 행정의 집중화로 인한 중간 책임직, 고위 책임직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역으로 부각시켰다고 말한다. 그는 결국 '근대성'이 만들어낸 편집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은 바로 지식인의 무덤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오늘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신지식인운동은 '지식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이성'과 '계몽'과 '공동체'를 압박하려는 신자유주의의 공세라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한 신지식인을 "학력과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거나 새로운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현 정부는 한국이 21세기 선진국가가 되는데 필수조건인 지식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걱정하면서, 그 대안으로 이처럼 '고정관념을 깨는' 실용적 인간형을 설정하는 듯하다. 그것은 신지식인의 모델로서 제시된 사람들의 면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자신의 직업 세계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높은 부가가치와 소득을 올린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신지식인'론은 르타르가 말한 보편적 이성을 추구하는 자들 단순히 전문적, 기술적 지식의 소유자로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식' 개념의 엘리트주의를 파괴한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경험지와 방법지를 교육에 의한 전문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르트르가 비판하는 기술적 지식인기전, 현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신지식인이건 앞에서 말한 '보편적 이념'을 감지하고, 그것을 주체 형성을 통해 현실화하려 하는 전통적 지식인을 비판하고 넘어서려는 자세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활동의 최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책임의식보다는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서의 기술적 판단과 책임성을 우선시하는 전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제 인간 공동체에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화된 영역에서의 정해진 규칙들에 대한 충실성만이 중요하게 된다. 이것은

직업의식, 혹은 전문가의 직업윤리에 기초하여 '보편적 책임성'을 대신하여 구체적인 결과와 그것의 유용성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후기산업사회의 직업군의 등장에 부응하고 있다. 이제 지식을 다루는 일이 종교적 신성함과 결부되었던 중세와 봉건 시대의 모든 흔적들은 사라지고, 세속의 가치가 도덕적 예언을 대신하는 시대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징표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언제나 존재에 대한 설명과 삶에 대한 의미부여를 요구한다. 직업이 뜰과 결부되고, 일이 수입과 결부되는 삶은 결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즉 인간은 예언자가 더 이상 필요없는 시대에 살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이 개인으로서 살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극도의 세속화,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언어, 기호들의 나열은 결코 유크피어를 대신할 수가 없다. 세속화의 극단, 그것은 바로 벨이 말한 자본주의의 문화적 위기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말'이 불필요한 사회가 아니라 '말'을 은밀하게 억제하는 사회이다. 국가에 의해 말이 억제되면, 비판의 말이 폭달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처럼 정형화되고 도식화된 즐거움에 의해 말이 억제되면, 이들의 침묵의 비밀을 들추어내어 거짓 예언자를 고발하는 예언자가 필요해진다. 대중은 해방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들추어내는 세력'이 없다면 문명은 야만으로 변할 것이다.

슈페터는 "대중은 결코 주도권을 쥐고 어떤 의견을 확고하게 펴지 못한다. 따라서 의견을 분명하게 개진한다거나 그러한 의견을 일관성 있는 태도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대중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가에 의해 침묵당한 대중들은 이제 자본에 의해 또다시 침묵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다. 과거나 오늘이나 그들은 이해관계를 쪽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관계 때문에 침묵하며,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이 경멸한 것이 전체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기성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순종하는 자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술적인 문제해결 방식, 경멸된 현실 그 자체로는 희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이 희망과 결합될 때 행동이 시작된다.

결국 오늘의 상황에서 국가 건설기에 요구되던 거대한 담론, 도덕적 예언자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경험주의, 기술주의, 전문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비가시화된 지배질서의 내막을 폭로해 주고,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질서와 배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기술주의 문명의 파괴적 성격, 도덕적 황폐화에 대한 구원의 필요성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종교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지식인의 시대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품이라는 신형종교가 대중을 미혹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지식인의 입지, 실천의 방식은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억압에 대항하여 '분노'만을 표출하기보다는 분노를 미학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멕시코 사회티스타의 마르코스는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지식인인 지도 모른다.